

## 내 생애 마지막 한달

누구에게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한달 밖에 살지 못한다는 <최종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한달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동안 케리숙 목사 부부가 쓴 <내 생애 마지막 한달>이라는 책자와 DVD 로 6 주간의 캠페인을 통해 많은 은혜 가운데서 마쳤다.나의 결론은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마지막 한달동안 무엇인가를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마지막 30 일 동안의 삶이 크게 변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주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즉 영원한 가치, 불변의 가치, 핵심적 가치는 무엇인가?’ 를 찾는 것이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 목표가 정해져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네가지 방법이 정해진다. 첫째가 열정적으로 살아라 (Live Passionately), 두번째가 온전히 사랑하라 (Love Completely), 세번째가 겸손히 배우라 (Learn Humble), 네번째가 담대히 떠나라 (Leave Boldly) 이다. 이 책 속의 핵심 단어들은 시간, 꿈, 우선순위, 감사, 용서, 사랑, 믿음, 소망, 인내와 고통, 용기, 나눔, 관계, 소통, 영적 가치, 영적 에너지, 영적 의사 소통, 달란트, 두려움, 고통, 상실, 실패, 죄책감, 내려놓음, 희생, 정직, 진실과 신뢰, 내적 변화, 영원한 유산, 영향력, 영적 재료, 영적 도구, 영적 토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 한편의 책에 담기에는 핵심 주제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산만하다. 또 나는 이 책의 내용들이 엘리자베스 퀘벌로스의 몇권의 책들에서 나오는 그녀의 사상과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해결방안도 그녀의 4L (Live, Love, Learn, Laugh)의 내용들이 종교적 해석을 제외하면 많은 부분이 흡사하다. 하지만 케리 숙 목사가 성경을 인용하는 것 처럼, 다른 전문가들의 글을 인용하던, 그가 깨닫고 하는 이야기던, 그가 마음을 거치지 않고 입으로 읊기는 이야기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특히 팔다리가 없는 너 부이치치의 간증중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의 믿음과 다시 태어나도 이 몸으로 태어나겠다는 고백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현대인의 문제는 책의

내용이나 핵심단어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다 막상 내 삶이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때서야 모든 걸 내려놓으며,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도 담담하게 받아드린다는 것이다. 물론 때늦은 후회를 한들 무엇이 크게 달라질까...

우리 주변에도 나눔과 봉사의 선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평소에 열정적으로 살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후회없이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그만 나눔을 실천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과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남은 시간이 한달이든, 일년이든 무엇이 크게 달라질까? 평소에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상실감도 더 클 것이다. 한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동안 <상실의 다섯단계>로 시간을 모두 소비할 수도 있다. 즉 그럴리가 없다고 <부정>하다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분노>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다니고, 몇달만이라도 더 살게 해 달라고 <타협>하다가, 좋다는 것은 다 해보게 되고, 의학이나 과학이나 종교의 힘으로도 안되니까 <절망>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수용>한다면 마지막 한달이 너무 아쉬운 것 아닌가. 그렇다고 평소에 하지 않던 선한 일들, 사랑, 믿음, 소망, 나눔, 용서 등을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한다든 것도 너무 버거운 일 아닌가.

현대를 사는 소시민들은 마지막 한달이 남았다면 함께 할 대상은 대부분이 <가족>이다. 용서할 사람도 그들이고, 용서받을 사람도 그들이다. 미워한 사람도 그들이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이니, 사랑할 사람도 그들이다. 나의 지혜와 재산을 물려 줄 사람도 그들이고, 영향력을 남길 사람도 그들이다. 누구 말대로 내가 태어 날 때 나는 울고 그들은 웃었듯이, 내가 죽을 때 나는 웃고 그들은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멋있게 죽는 것은 명성이나 재산, 조문객의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산 세월들이 행복했었다'는 한마디가 아닐까? 천국가면 그분의 <수고했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위함이 아닐까? 그럴려면 한달로 되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 인생의 최고 가치를 두,세개만 남겨두고 내 인생의 창고부터 정리하자. 한달이든, 백년이든 인생의 짧음은 유한하고, '나중에'라는 허상은 막연하다. 나의 대상은 인류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불과 몇사람이다. 그들을 사랑하는데 많은 재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생의 성공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게 함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좋은 영향을 남겨주려 함이다. 누구처럼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로 남기거나, 간증이나 베스트셀러로 남기거나, 일기나 회고록 등 여러 형태로 나의 살아온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억은 삶 속의 빛바랜 사진 몇장인 것처럼 나와와 아름다운 흔적일 것이다.

결국 죽은 후에라도 처자식들에게 욕 안듣고 제사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어느 책이나 결론은 마찬가지다. 톨스토이의 질문처럼 <어디서? 지금 있는 곳에서 잘 해라. 언제? 지금 있을때 잘 해라. 누구에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해라. 무엇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모두로 잘 해라. 어떻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아낌없이 잘 해라.>